

Beautiful Mem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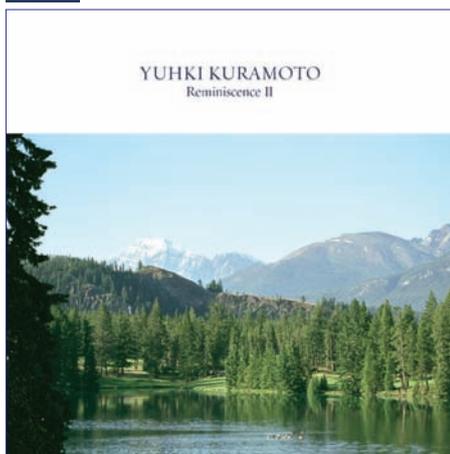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SangWook Lee

한국 첫 앨범 [Reminiscence(회상)]의 발매 20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한국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신작!

New Album



YUHKI KURAMOTO [Reminiscence II] 유키 구라모토 [회상 II]

로맨틱한 선율을 담은 따스한 피아노 연주로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1998년 발표 이후,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국내 첫 앨범 [회상]의 발매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피아노 솔로의 감동적인 울림을 전하는 작품인 [회상 II]. 한국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Cordiality (진심)〉을 비롯, 12곡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펼쳐지며 서정적인 감동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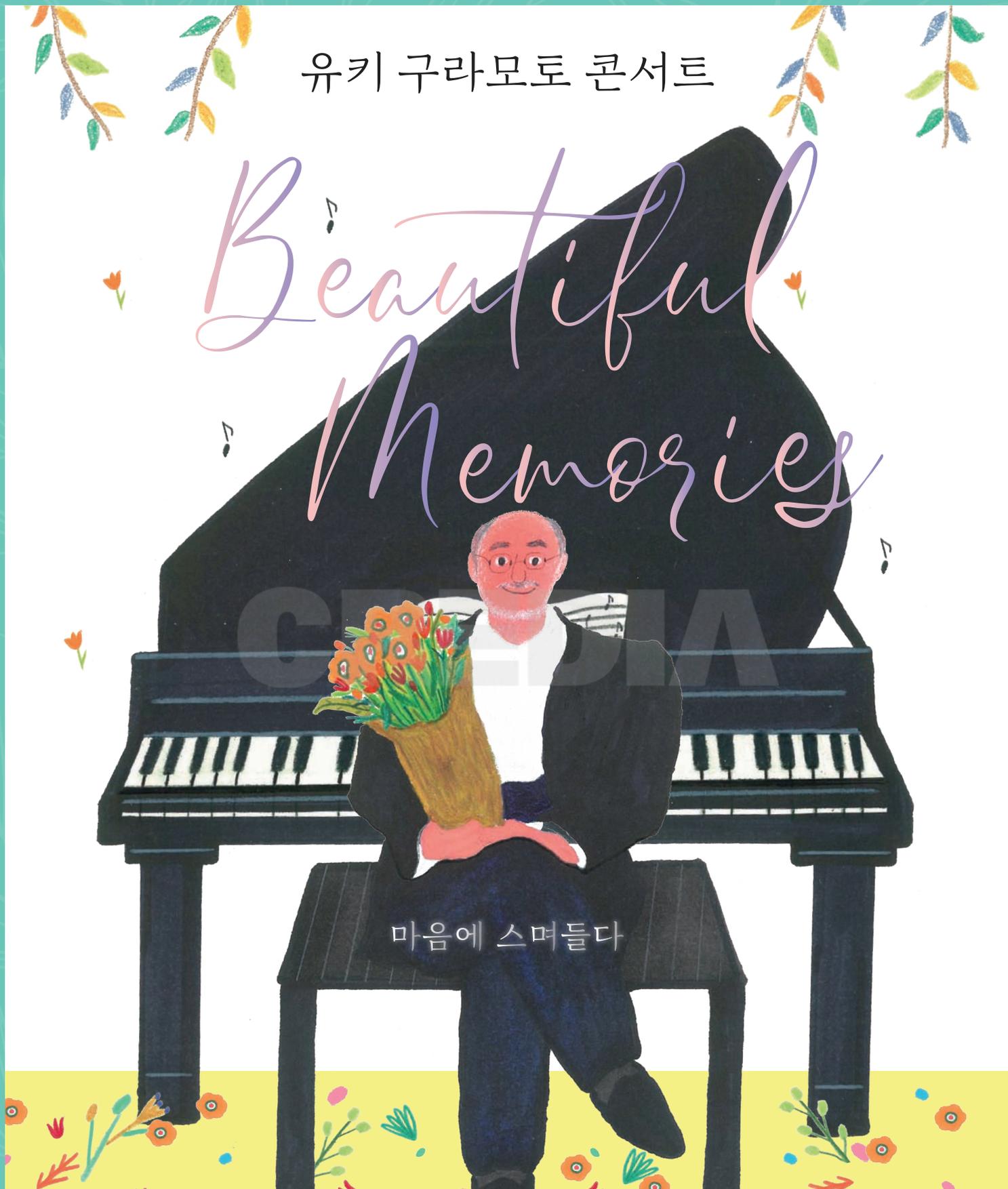
“유키 구라모토는 20년 동안 출작이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며 파스텔 톤 물빛 피아노의 서정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인기는 결코 식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늘어난 요즘 그의 음악이 맑은 공기처럼 더 그리워진다.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은 귀로 듣는 공기청정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류태형(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Beautiful
Memories



마음에 스며들다

5월 23일 수요일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B E A U T I F U L M E M O R I E S

오늘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는 1999년 5월에 첫 공연을 선보였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추억이 깊은 날입니다. 그 후로도 해마다 한국을 방문해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상, 추억, 기억, 그리움 등의 단어가 더욱 마음 속에 큰 울림을 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만, 새 앨범 타이틀이 Reminiscence II (II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새로운 작품의 새로운 녹음입니다)가 되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신곡을 열심히 연주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에는 매번 고생, 아니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1부는 신곡과 이전 곡들을 함께 넣어 서정적인 피아노 솔로로 노래해 갑니다. 프롤로그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친숙하게 느끼시는 Meditation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절감이 있는 자연을 테마로 한 곡,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이어주는 물의 요정, 로맨스, 그리고 백일몽이나, 좋은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부는 현악, 앙상블, 그리고 목관 사중주의 연주자 분들도 함께합니다. 피아노의 음색을 현악기가 부드럽게 감싸 안고, 또한 목관악기가 색채를 더한 산뜻한 음색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편곡도 새롭게 다시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북에 짧은 글을 써 두었는데요. 각각의 곡에 대해서 영문 타이틀, 오늘의 연주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발매 음반명, 저 유키 구라모토가 붙여놓은 작품번호(보통 연대순), 그리고 곡의 조성(연주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곡에 따라서는 음악이론 같은 것들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은 2,3곡마다 하위 테마를 붙여 두었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엄밀한 것은 아니지만, 곡이 짧은 점을 보완하기도 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면서 듣기 쉬워지지 않을까 하고 나름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인사말에 늘 써 두는 것이지만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인터넷뿐만 아니라 무선 송수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요즘은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옛날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전자회로가 '개입'하고, 혹은 무선이라 하더라도 실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이죠. 다만, 오늘 같은 콘서트의 음악은 피아노를 연주하여 내는 음(=에너지)이 오직 공기를 통해 '직접' 청중 분들께 전해 집니다. 인간이 실제로 연주로 만들어내는 콘서트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음악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청중의 눈 앞에서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여 음악을 자아내는 것은 제게는 시련이기도 하지만, 생생한 음악의 울림을 통해서 충실하게 기분 좋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연주할 생각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께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유키 구라모토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18년 5월 23일 (수)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PART I

Prologue

Meditation	유키구라모토	Score Of Piano
------------	--------	----------------

Nature

In A Beautiful Season	유키구라모토	Piano Jewels
-----------------------	--------	--------------

Snowfall Of Cherry Blossom	유키구라모토	Piano Jewels
----------------------------	--------	--------------

Ondine

Romance On The Shore	유키구라모토	Time For Journey
----------------------	--------	------------------

Ondine	유키구라모토	Score Of Piano
--------	--------	----------------

Virgin Road For Celebration	유키구라모토	REFINEMENT*
-----------------------------	--------	-------------

Romance

Romance	유키구라모토	Score Of Piano
---------	--------	----------------

Rêverie

Daydream	유키구라모토	Reminiscence II (new)
----------	--------	-----------------------

Whereabouts Of Love	유키구라모토	Reminiscence II (new)
---------------------	--------	-----------------------

Beautiful Memories	유키구라모토	Reminiscence II (new)
--------------------	--------	-----------------------

Affection

Warm Affection	유키구라모토 김범구 Violin 정다운 Cello	Misty Lake Louise*
----------------	-----------------------------	--------------------

Lake Louise	유키구라모토 김범구 Violin 정다운 Cello	Misty Lake Louise*
-------------	-----------------------------	--------------------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공연 중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진 및 영상, 녹음 기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Unauthorized camera and recording devices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BEAUTIFUL MEMORIES

8PM Wednesday, May 23,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PART 2

Breeze

In A Refreshing Breeze 유키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Time For Journey*

Flower

I Suppose Flowers Will Fall Down 유키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Piano Affection
Second Romance 유키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Romancing Strings

Forest

Cottage For The Rabbit 손소이 Flute 김수진 Oboe Misty Lake Louise*
 이진아 Clarinet 박준태 Bassoon
Forest 손소이 Flute 김수진 Oboe 이진아 Clarinet Misty Lake Louise*
 박준태 Bassoon 유키구라모토

Water

A Mirage On The Water (Barcarolle) 유키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Reminiscence*
Look Down The Sea 유키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Concertino*

Scenery

Scenery Of A Garden 유키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Rêverie*
Elysium 유키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Rêverie*

Memories

Memory Of Cinderella Time 유키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Sceneries In Love*
Album, Full Of Memories 유키구라모토 정다운 Cello Reminiscence II (new)
Memory Of Love 유키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Heartstrings Again*

* 공연을 위해 편곡됨 | Arranged for Concerts

Meditation

Score Of Piano

#106 D Major

Meditation 즉 명상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조금 오버일지도 모르겠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정도의 인상일까요. 어찌됐든, 마음이 해방되어 상쾌한 기분으로 있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겠죠. 일본어 타이틀에는 '하늘에'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Reminiscence] 음반에 있는 새(G)장조의 연주가 이런 이미지에 가장 비슷하지만, 오늘은 [Score Of Piano] 음반에 있는, 도중에 조금 고양되는 버전으로 연주하겠습니다.

In A Beautiful Season

Piano Jewels

#194 E Major

'시간'의 소중함이 주제 중에 하나였던 <스킵>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음악을 담당했을 적에 작곡했던 많은 곡들 중 하나입니다. 극중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부르는 합창버전도 있고, 가사는 '문을 열고 계절의...'로 시작해서 '...지금이야말로 너는 아름답다'하고 마무리 됩니다. 상쾌한 계절과 심정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season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양념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점도 재미있네요. 확실히 사계절 각각이 서로 다른 맛을 지니고 있지요. 어느 시기가 되더라도, 심정적으로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면, 그 때의 시간의 흐름이야말로 아름다운 계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nowfall Of Cherry Blossom

Piano Jewels

#229 C# minor

NHK 금요 시대극 드라마를 위한 곡들 중 하나입니다. 피아노의 연주적인 기교로서, 양손을 함께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쳐 가면서 멜로디를 드러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꽃보라가 아름답게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도중에 미묘한 조바꿈이 있어 몽롱한 느낌의 곡조로 변하지만, 다시 처음의 테마로 돌아가 회상합니다. 음악이론적으로 써 본다면, 주제는 (#)이 4개 붙은 조(마장조 혹은 올림 다 단조)로, 중간부는 플랫(b)이 세 개 붙은 조(다단조 혹은 내림 마장조)가 됩니다. 이론은 어찌됐든, 벚꽃 잎이 하늘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정경을 상상해 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Romance On The Shore

Time for Journey

#268 Bb minor

어디까지나 애달픈 감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연 속의 물가, 혹은 가로수나 멋진 포장도로가 있는 물가 같은 곳에서 사랑을 말하거나, 혹은 혼자 사랑에 빠진 감정에 잠긴 모습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떠들썩한 곳이 아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Ondine

Score Of Piano

#092 Bb minor

이 곡도 오른손으로는 멜로디와 함께 반주인 아르페지오도 연주합니다. 중간부터는 게다가, 오른손의 멜로디에 호응하는 왼손의 라인이 등장합니다. (요정전설로 유명한 로렐라이가 있는 라인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로 Ondine(물의 요정)이라고 한다면 약간 고혹적인 느낌이 드네요. 역시 미녀가 우아하게 연주하는 하프의 반주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프라는 악기는 악보의 플랫(b)이 많은 곡조일수록 울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곡도 플랫 다섯 개의 내림 나단조로 했습니다. [Concertino] 음반에서는 실제로 하프가 아르페지오를 연주합니다. 물의 요정!도 멋지지만 술의 요정?도 나쁘지 않네요...

Virgin Road For Celebration

REFINEMENT

#123 Eb Major

CD음반 [REFINEMENT]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연주로 발표했습니다. 엄숙한 기품이 있는 결혼행진곡이 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트로의 팡파레에 이어서, 먼저 신랑신부의 엄숙한 걸음을 표현합니다. 도중에 한 줄기 쓸쓸함이 느껴질 지도 모를 신랑신부측 부모님들의 기분을 표현하듯이 약간 애수를 머금은 멜로디가 울리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축하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두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하며, 따뜻하게 곡을 마무리합니다.

Romance

Score Of Piano

#083 E minor

로맨스라고 한다면 두근두근하는 마음보다는 애달픈 감정, 사모함이라고 하는 마음 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87년에 작곡했지만 2005년에 한국 영화 <달콤한 인생>의 문자 그대로 로맨스의 장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도중에 '사~랑해...'라고 하는 것 같은 가사를 붙일 법한 곳들이 나오지만, 그 직후 너지시 이에 호응하는 세 음의 멜로디가 왼손으로 연주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익숙하실 여러 가지 스타일(악기 편성)의 편곡이 있지만, 오늘은 피아노 솔로의 연주로 전해 드립니다.

Daydream

Reminiscence II

#212 Db Major

일본에서의 타이틀은 '졸음에서 깨어나'인데요, 타이틀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어렵게도 처음에는 'Awakening From Dozing'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꿈결같은 기분처럼 의미를 취해서 이 곡의 타이틀은 'Daydream'으로 지었습니다. 비몽사몽할 적에, 어떤 도취감 같은 것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럴 때의 꿈은 대개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터치로 말을 거는 것 같은 멜로디로 시작합니다. 몇 개인가의 모티브(오늘의 제 9번 곡 'Whereabouts of Love(그리고 어떤 분위기의 사랑이...)'의 음형)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Whereabouts Of Love

Reminiscence II

#214 F# minor

'그리고 어떤 분위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 타이틀입니다. 영어로 하면 길어져 버리고 뉘앙스도 달라져 버리네요. 추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 버리는 걸까? 같은 다소 철학적인 자문자답이 잠시 이어진 뒤에, 이윽고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위로의 멜로디가 울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 갈등이 고개를 들고 처음과 같은 자문자답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Beautiful Memories

Reminiscence II

#400 E Major

華岡青洲(하나오카 세이슈)라고 하는 1800년 전후에 마취를 개발한 실제 인물의 부인의 생애가 일본에서 몇 번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연극 등으로 다뤄져 왔는데요, 2016년에는 여배우 홀로 나오는 멋진 연극을 위해 제가 음악을 만들어 연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기는 각지에서 몇 번 상연되었고 실황 녹음은 NHK라디오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수 많은 상황의 서로 다른 장면에 맞추어서 음악을 만들지만, 너무 유럽풍의 멜로디가 아니라 심플한 음계의 멜로디로 여러 가지 화음을 조합해서, 부드럽고 정감 있는 느낌이 들도록 고심했습니다. 인생에서 마음의 울림이 있는 여러 가지 장면 즉 아름다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주마등처럼 돌아가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감상용의 곡으로 완성했습니다.

Warm Affection

Misty Lake Louise

#200 A Major

당초에는 드라마의 배경음악 중 하나로 작곡된 곡입니다. 제목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지켜보는 사랑의 형태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이 원곡으로, 한국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씨나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씨의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벨기에에서도 (저도 만난 적 있는 피아니스트와 친구분들이) 연주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이올린과 첼로의 최고 연주자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주(主)선율 외에 첼로가 연주하는 대(對)선율을 보태어, 적당한 긴장감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Lake Louise

Misty Lake Louise

#047 D Major

캐나다 록키 산맥의 보석이라고 칭송 받는 아름다운 맑고 깨끗한 호수, 레이크 루이즈. 저도 세 번 방문해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이 곡을 발표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조금씩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 것은 작곡가로서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오늘 와 주신 여러분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상쾌하고 기분 좋은 피아노의 멜로디 등, 저 스스로도 특히 마음에 드는 곡입니다. 이후에도 오케스트라나 현악 독주 등을 동반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녹음해 왔지만, 오늘은 앞의 곡에 이어 바이올린+첼로+피아노 세 명이 풀 버전으로 연주하겠습니다.

In A Refreshing Breeze

Time For Journey

#286 G Major

왼손의 심플한 아르페지오에, 시원하게 흘러가는 듯한 멜로디를 올려 보았습니다. 도중에 조금 긴장이 스쳐 지나가지만 곧 처음으로 돌아와 차분한 걸음이 됩니다. 피아노 솔로 버전이 [Time for Journey] 음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약간 높은 언덕에 위치한 맵시 있는 호텔에서도 이 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선한 바람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산들바람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기분을 새롭게 해 주는 것 같은 '시원한 산들바람'입니다.

I Suppose Flowers Will Fall Down

Piano Affection

#220 B minor

일본어 타이틀은 '꽃이 흩날려 내린다고 생각해'입니다. ♪ 꽃이 흩날려 내린다고 생각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악구가 새겨져 있습니다.センチ멘탈한 감정의 표현을 메인으로 한 곡입니다. 한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을 때 엔딩 부근에서 이 곡과 'Second Romance'를 필요에 따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꽤 효과적이기도 했기에 오늘은 그것을 가져와서 이 두 곡을 연달아 연주하겠습니다.

Second Romance

Romancing Strings

#117 B minor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작되는 울적한 멜로디가 자문자답을 반복하듯이 계속 노래해 가며, 도중에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다시 처음의 멜로디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로맨스인 점이 좀 의미심장하네요. 현악기를 동반한 연주는 음반 [Romancing Strings]에, 그리고 영화 <제니퍼>의 엔딩 롤에서도 사용된 이 곡의 좀 더 짧은 버전은 'I Suppose Flowers Will Fall Down' 곡과 함께 음반 [Piano Affection]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Cottage For The Rabbit

Misty Lake Louise

#273 F Major

'아기 토끼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며 갑니다. 그러던 와중, 너무 멀리 갔는지 약간 불안한 기분이 됩니다.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해, 또다시 즐겁게 뛰놀며 귀로에 오릅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떠올리며 들으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음반 [Time For Journey]에서는 피아노 솔로로 마장조 조성으로 연주했지만, 오늘 피아노가 없는 사중주 편성에서는 반음 올린 바장조입니다. 음반 [Lake Misty Louise]에 담긴 편성과는 약간 다르게,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의 네 명의 목관악기 연주자들의 다채로운 연주를 즐겨 주세요.

Forest

Misty Lake Louise

#094 D - Eb Major

어쩌면 숲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고원을 말을 타고 씩씩하게 달려 빠져나간다고 하는 인상이 더 어울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딱 좋아서 타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다는 느낌입니다. 적당히 경쾌한 템포에 실린 각 악기가 멜로디를 노래해 갑니다. 중간에도 플룻이 특히 활약하여, 산뜻한 바람이 불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반 [Romance Collection]에서는 피아노 솔로로 약간 온화한 연주로 녹음했었지만, 오늘은 방금 연주해 주신 목관악기 연주자분들과 함께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A Mirage On The Water

Reminiscence

#084 C# minor

음악적인 장르로는 바르카롤레(벚노래)라고 해도 좋겠네요. 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이는 편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지만, 사실은 로맨스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를 타이틀에 넣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제로는 작은 배의 로맨스, 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실제로 곡조는 약간 차분하기도 하고.... 로맨스가 싹트는 곳으로서, 타이타닉호 같은 거대한 배가 아니라, 둘이서 타면 충분한 크기네요. 오늘은 실내 관현악 반주와 함께 편곡한 것으로 들어 주세요.

Look Down The Sea

Concertino

#063 E Major - C# minor

등대가 있을법한 곳의 위에서 넓은 시야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시작부분은 느슨한 아르페지오(파도)에 실린 피아노 멜로디가, 현악을 동반해가며 표정을 변화시켜 갑니다. 곡의 중간부분부터는 '바다'가 조금 거세지는 모습을 보이 기 시작합니다. 3도 화음으로 현악기도 이에 가세해 하지만, 점차 원래의 평온한 바다로 돌아옵니다.

Scenery Of A Garden

Rêverie

#256 D Major

'마치 프랑스 회화의 인상파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 울림이 매우 아름답다'는 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이란, 나라에 따라서는 정취나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분들께는 자유로운 이미지로 멋진 정경을 떠올 려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플룻이 묘사적인 멜로디를 대부분 라(D)장조의 음계로 연주해 가다가, 미묘한 조바꿈 구절을 지나 오 보에가 이를 이어갈 때에는, 내림 나(b)단조로 바뀌어 갑니다. 정경의 변화를 느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Elysium

Rêverie

#224 B Major

엘리시움이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행복의 이상향'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요. '극락 정토'라고 하는 번역어도 있는 것 같지만 말이죠... 인간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는 맑고 깨끗한 공기나 적절한 온도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현악 및 목관 앙상블과의 연주(음반 [Rêverie]와 거의 같은)이지만, 음반 [Misty Lake Louise]에서는 피아노와 혼성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사람이 많은 편성의 연 주는 호화로운 느낌이 드는 한편, 적은 수의 사람의 연주는 왠지 일상적인 느낌이 드네요.

CREEDIA**Memory Of Cinderella Time**

Sceneries in Love

#196 C minor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잔혹한 면을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때는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죠. 하지만 역시 과거의 좋은 추억에 잠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틀림없이 지금 현재의 행위인 것이라서,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추억에 대한 그리움, 사랑스러움, 쓸쓸함, 안타까움 등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이 곡입니다. 이번 프로 그램의 2번째 곡 'In A Beautiful Season'의 해설에도 있는 것과 같은 드라마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시간'의 소중함이 주제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Album, Full Of Memories

Reminiscence II

#363 C Major

추억의 사진이 많이 붙어있는 앨범을 열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리움이 밀려들어옵니다. 그렇게 서서히 고양되어 가는 감 정을 곡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곡을 사용한 한국의 아티스트도 있으신데요. 신보에서는 피아노 솔로로 연주했지만, 오늘 은 첼로의 정다운 씨도 함께 연주하여, 마음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Memory Of Love

Heartstrings Again

#335 B minor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갈라 공연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때에 들어온 작품입니다. 서희정 씨의 한국어 시에 곡을 붙인 것이어서, 단어의 음운을 중시해 자연스러운 멜로디가 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프로 중의 프로인 성악가분이 불러주시는 것 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노래로서는 평이한 것은 아닙니다. 2006년 9월 발표해 곧이어 한국의 드라마 <주몽>의 음악으로 몇 회 방송되었고 일본에서도 OST음반으로 발매되었습니다. 피아노의 instrumental(연주곡)으로는 음반 [Heartstrings Again]에 현악합주 반주로 연주한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곡을 쓰게 된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모든 곡들에는 제 기억이 담겨있습니다.

- YUHKI KURAMOTO -





CHIARA

© S. KIMURA / LEE

유키 구라모토

YUHKI KURAMOTO

Pianist, Composer & Arranger

1951년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태어난 유키 구라모토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학창시절에는 라흐마니노프와 그리그 등의 피아노 협주곡에 심취하여, 아마추어 교향악단에서 독주자로 활동하는 등 피아니스트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유키 구라모토는 일본의 명문 도쿄공업대학에 진학하여 응용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하였다. 응용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음악가와 학자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음악가의 길을 선택하였고, 연주는 물론 클래식 작곡과 편곡, 그리고 팝 음악 연구에 몰두했다.

1986년 유키 구라모토는 첫 피아노 솔로앨범 <레이크 미스티 블루(Lake Misty Blue)>를 발표하였는데, 수록곡 중 '레이크 루이즈(Lake Louise)'가 크게 히트하면서 데뷔에 성공하였다. 이후 영국 런던 필하모니와 협연한 앨범 <리파인먼트(Refinement)>를 발표하여 높은 음악성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는다. 국내에는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첫 앨범 <회상 (Reminiscence)>[1988]의 발매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피아노 솔로의 감동적인 울림을 전하는 작품인 <회상 II(Reminiscence II)>를 최근 발표했다.

구라모토는 음반 발매 이외에도 아사히TV의 '호텔', NHK의 '한번 더 키스(쿠보즈카 요스케, 윤순하 주연)' 등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음악은 케이블TV, 레이저디스크 등의 영상음악뿐만 아니라 일본항공 등 항공사의 '인플라이트 뮤직(In flight Music)'으로도 각광받아 왔다.

또한 한국에서도 199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첫 내한공연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2014년까지 매년 내한공연에서 서울공연 전석매진을 기록하는 등 가장 사랑 받는 피아니스트로 자리잡게 된다. 더불어 2004년 일본 레코드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 6월에는 일본 음반데뷔 20주년 전국 투어를 펼쳤다.

유키 구라모토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조수미', '신승훈' 등 한국 음악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2009년 3월과 11월에는 한국 공연데뷔 10주년을, 2014년 3월과 10월에는 한국 공연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2015년 9월에는 '레이크 루이즈' 발매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었다. 2011년 7월에는 처음으로 뮤지컬 음악 작곡에 도전하여 일본창작 뮤지컬 <폭풍의 언덕>의 전곡을 작곡, 그의 음악성이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여수 엑스포 2012에서 일본관의 모든 파빌리온의 음악을 작곡, 연주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에 어울리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선보이는 등 폭 넓은 음악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었다. 2009년부터는 매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오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CREDIA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디토 오케스트라는 2008년 조직되어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라 불리는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이자 815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지이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 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20~30대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창단 후 정민, 아드리엘 김,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초지(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상임 및 음악감독),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태형,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신현수), 조진주, 한빈(아마데우스 레오폴트), 김다미,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과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하였다.

디토 오케스트라는 디토 페스티벌 상주 단체로 매년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 등 정통 심포니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의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으며, 장하나 & 황병기 심포니 공연,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피아노 파라디소>, <조수미 라 판타지아>, <로맨티스트>, <디즈니 인 콘서트>, 815 DMZ 평화콘서트, 바비 심포니 음악회 <Barbie at the Symphony>,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등을 안정된 실력과 앙상블을 바탕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디토 오케스트라의 교육 프로젝트인 <디토 카니발>은 클래식과 비주얼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호평 받은 바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는 2013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상주예술단체로 선정, 정민의 지휘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 콘체르탄테 공연에 참여했다. 앞으로 패밀리 콘서트, 관객 개발 사업, 음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며, 2017년부터는 디토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로서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서초문화재단 상주단체로 선정, 보다 젊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이다.



유키 구라모토를 듣는, 별이 빛나는 봄밤

미세먼지 심한 봄날, 음반 한 장 시디플레이어에 걸었다. 2015년 12월 발매된 'Misty Lake Louise'의 머릿곡 '레이크 루이즈'가 흐른다. 1999년 데뷔앨범에 수록됐을 때의 독주 버전도 좋지만 바이올린과 함께 서로를 나선형으로 휘감는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에서 청결한 이미지가 더욱 도드라진다. 그가 그려내는 청록색 이끼 낀 산의 아침 안개 같은 풍경에서 호흡하고 싶어진다. 1998년 'Reminiscence' 앨범으로 첫 상륙한 이래 유키 구라모토는 20년 동안 줄잡아 스무 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며 파스텔 톤 물빛 피아노의 서정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맑은 공기가 그리워지는 요즘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은 귀로 듣는 공기청정기다. '레이크 루이즈'나 '로망스' '메디테이션' 등 언제 들어도 좋은 올 타임 웨이버리츠는 늘 사랑 받는다. 하지만 그의 음반들을 내리 듣다 보면 귀를 잡아끄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곡들도 많다. 유키 구라모토의 '히든 트랙'을 소개한다. 이들 가운데 몇 곡은 5월 23일 개최되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도 들을 수 있다.

© SANGWOOK LEE

In A Refreshing Breeze

화사한 파스텔 톤과 수채화의 서정성, 수묵화의 간명한 동양적 터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단순한 멜로디지만 그 안에는 질실강건(質實強健), 즉 꾸밈없이 착실하고 심신이 건강한 유키 구라모토의 슬로건이 나누끼고 있다.

A Scene Of La Seine

그 언젠가 쇼팽이 물끄러미 바라봤을 센 강이 유키 구라모토의 손끝에서 오늘도 흐른다. 런던 필하모닉과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지만 동양적 우수는 더욱 두드러진다.

Ondine

‘옹딘’은 물의 요정 운디네의 프랑스식 표기다. 이 운디네와 드보르자크 오페라에 나오는 ‘루살카’를 바탕으로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인어공주’를 썼다. 물의 요정이 다른 세계를 사는 인간 왕자와 겪는 사랑과 배신은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거리다. 물이 물 위에 떨어지는 듯한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음색과 아르페지오로 그리는 아픈 속명은 사랑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Invitation To Dress Circle (Graceful Waltz)

드레스 서클은 격식을 갖춘 드레스 코드를 준수한 사람들이 앉은 특별석을 의미한다. 화창한 날의 야외 파티처럼 우아하다. 평범한 나날들로 이뤄진 우리 생이지만 가끔은 이 곡처럼 특별한 날이 있어준다면.

Warm Affection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 받을 때처럼 따스함이 온 몸에 퍼진다. 신파나 감정과잉으로 빠지지 않고 뚜렷하고 아련한 색채감으로 남는 곡이다.

Virgin Road

유키 구라모토의 설명대로 봄의 결혼식을 연상케한다. 당당한 신랑의 입장, 수줍은 신부의 붉은 뺨, 거기에 대조되는 양가 부모님의 쓸쓸함이 인생의 한 단면을 제공한다. 결혼 뒤에도 식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삶은 계속되리라.

Soaring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든다. 거대한 쇠덩어리가 백 명이 넘는 사람을 태우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활주로에서 대기하다 속도를 높이고 지상에서 떠오르는 비행기를 그렸다. 비행기가 향하는 곳은 신카이 마코토가 그린 하늘처럼 포근한 흰 구름이 떠 있고 벚꽃 향이 날 것 같다.

Second Romance

이 곡은 히든 트랙이라기에는 유명하다. 그래도 보석 같은 작품이라 선정해 봤다. 단도직입적으로 애상적인 도입부의 멜로디는 입 꼭 다문 듯 단단한 결심 같은 마음이 느껴진다. 첫 멜로디로 돌아갈 때의 짜임새가 아무지다.

Forest

산 중턱쯤에서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식혀주는 바람 같다. 눈을 정화시키는 연꽃빛 신록과 그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 젖은 흙 밑으로 맑게 흐르는 개울물이 숲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유키 구라모토의 숲에는 미세먼지가 없다.

Little Starlight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이 쏟아진다. 몇억 광년 떨어진 존재의 증거들이 밤의 침묵을 천문학적으로 넓혀놓는다. 오갱키 데스까. 오늘 유키 구라모토를 듣는 나는 안녕하다.

글 |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음악은 인생 그 자체다.

즐겁고 또 힘들고...

음악도 인생도 히로애락이 있다.

- YUHKI KURAMOTO -

CREDIA

© STUDIO BOB

MPO 2-353
Musiktheater Orchester



STEINWAY & SONS

SPIRIO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우리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피아노

* STEINWAYSPIRIO.COM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RHAPSODY IN BLUE



ECSTATIC IN PINK

언제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콘서트 -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iPAD와 연동하여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의 곡을 무료로 얼마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 코스모스악기



낙원피아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3층 344호 TEL (02)763-8338

자세한 정보는 STEINWAYSPIRIO.COM 를 방문하세요.



STEINWAY & SONS

클럽발코니 유료회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공연장 매너 이야기

공연장에는 30분 앞찍
도착해서 여유를
즐겨주세요.



악장 사이 방금 들은
곡의 흐름을 방해해요.



앞자리를
방금 차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 두셔도 좋습니다.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안돼요.



크레디아 기획 공연 관람 전
유료회원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북을 증정 합니다.

(단, 클럽발코니에서 예매해주신 분에만 해당됩니다.)



15만 공연 애호가들의 선택

JOIN
CLUBBALCONY

예매고수의
노하우!

-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 문화애호가들의 필수품, Club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 회원카드 지참시 기획공연 크레디아 프로그램북 증정
-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 1년 3만원, 5년 12만원, 10년 20만원! 만료 후 재가입시 할인 혜택

www.clubbalcony.com | 1577-5266

ditto Fest Be the original 2018

<황금 듀오, 그 세 번째 무대>

용재 오닐 & 임동혁

2018.6.7 (목)

롯데콘서트홀

7

<워너비 듀오>

문태국 & 한지호

2018.6.9 (토)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9

<클라 부는 사나이>

김한

2018.6.10 (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10

<디어 마에스트로>

마이ски & 디토

2018.6.12 (화)

롯데콘서트홀

12

<다이나믹 라운드>

양상블 디토 Ep.10+1

2018.6.23 (토)

롯데콘서트홀

23



8 월, 단 3 일만

오픈합니다.

CREEDIA

8.10. Fri

노리플라이 ♪ 멜로망스

8.11. Sat

루시드폴

8.12. Sun

이루마

2018. 8. 10-12 롯데콘서트홀

하늘과 바다와 음악 樂
CIELOS WEEKENTOUR SPECIAL 1

통영스토리 1박 2일



모두가 꿈꿔온 여정
자연과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한 여름 통영의 푸른 바다에서 펼쳐지는
음악의 감동에 초대합니다.



스페셜 프로그램

- 프로그램 1 | 8/17(금) 15시 30분 렉처 <통영을 만나는 가장 멋진 방법>
- 프로그램 2 | 8/17(금) 19시 30분 황인용&황덕호 렉처 <나의 음악, 나의 인생>
- 프로그램 3 | 8/17(금) 20시 30분 밋더 아티스트 & 콘서트 프리렉처
- 프로그램 4 | 8/18(토) 9시 해안 산책
- 프로그램 5 | 8/18(토) 13시 씨엘로스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

* 출연 : 임동혁, 지용, 황수미, 박지민, 문태국, 김봄소리, 김한
* 본 공연은 총 4시간 정도 진행되며,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여행일자 2018년 8월 17일(금)~18(토) 1박 2일
- 숙박 통영 스탠포드호텔
- 상품가 패키지 349,000원

클럽발코니&씨엘로스와 함께 하는 공감과 나눔의 문화여행

CIELOS WEEKENTOUR SPECIAL 시리즈는 아티스트, 문화예술 명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에서 음악과 음악이야기를 나누고, 색다른 여행의 매력을 재발견하며 경험하는 클럽발코니&씨엘로스만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여행의 하이라이트, 씨엘로스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

한 여름의 통영바다를 클래식으로 수놓을 씨엘로스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는 장장 4시간에 걸쳐 펼쳐지며 이번 여행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동을 느끼며 연주자를 응원하고 공연의 여운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하세요.

문의 1577-5266 010-9799-5266 www.clubbalcony.com



새로운 비행의 역사가 제2여객터미널에서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REDIA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The Class Hyosung

더클래스 효성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선택한 공식딜러입니다.

효성그룹이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더클래스 효성은 안정적이고 차별화 된 서비스,
끊임없는 투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만의
퍼스트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 1899-0808

Mercedes-Benz



더클래스 효성

•강남대로 전시장 02) 575-7500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분당정자 전시장 031) 786-6000 •안양평촌 전시장 031) 689-8900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용인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스타필드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